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소수민족 정책

남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최병욱*

- I. 머리말
- II. 동화의 이념
- III. 동화의 유형
- IV. 반 란
- V. 맺음말

I. 머리말

베트남의 현대사를 관찰할 때 우리는 민족적 갈등의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늘 떠올리게 된다.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 吳廷琰) 치하 베트남공화국(1955~1963)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핍박은 그들의 직업까지 제한할 정도였으며,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탄압은 대규모 탈주 상태를 낳기도 했다. 크메르 루주 군의 베트남인 살육과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진입은 정치적 고려만큼이나 베트남인들과 크메르인들 사이의 뿌리깊은 민족적 갈등에 의해 자극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의 공간적 주배경은 남부베트남¹⁾이다. 아직도 베트남 정부는

*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강사

1) 여기서 남부베트남이란 베트남인들 사이에 자 딘(Gia Dinh, 嘉定), 남 끼(Nam Ky, 南圻), 록 띠엔 남 끼(Luc Tinh Nam Ky, 南圻六省), 미엔 남(Mien Nam), 남 보(Nam Bo, 南部) 혹은 이후 프랑스 식민지 시대 코친차이나라고 불리던 독립된 지역 단

남부베트남에서 민족간의 갈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1997년 남부베트남 쪽 쩡(Soc Trang) 省 농민들 사이의 토지소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에 접해서는 당시 공산당 총비서 도 무어이(Do Muoi)가 직접 내려가 3일 간이나 현지에 머물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는 토지 문제 자체로서의 심각성보다는 이 토지 문제가 민족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주로 크메르인들이었기 때문이다(Lao Dong, 1997, 7, 3). 그렇다면 남부베트남에서 왜 자꾸 민족간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19세기 전반 남부베트남에서의 소수민족²⁾ 문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베트남은 원래 북부 紅河 델타를 근거지로 하는 왕국이었고 11세기가 되어서야 현재의 중부지역으로 영토를 확대하기 시작해서 17세기말이 되어서 현재의 남부지역, 그러니까 사이공 강, 동 나이(Dong Nai) 강 유역과 메콩 델타 지역 일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배권을 천명하게 된다. 이 南進의 과정에서 당연히 베트남인은 다양한 민족들과 부딪쳤으며 이들을 말살 또는 흡수하면서 중부와 남부 지역을 베트남화 해 갔다. 베트남인들에게 희생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민족은 이미 기원후 2세기 경부터 현재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참파(Champa)왕국의 참(Cham) 族이며, 그 남부 메콩델타 지역은 캄보디아의 남쪽 변방지대였다.

하지만 우리는 베트남인들이 중부지역을 통과할 때와 남부에 진입했을 때 맞닥뜨린 상황이 자못 달랐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파는 이미 중부 지역에 자민족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중부의 평원지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비록 중부에 참파 외에도 다수의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참파인에 의해서 장악된 평지를 떠나 고원지대로 들어가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인들이 중부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은 참 族이라는 단일

위를 말한다. 현재의 비엔 호아(Bien Hoa, 邊和) 지역으로부터 사이공을 거쳐 그 이서의 광범한 메콩 델타를 포괄한다.

2) 현재의 국가를 형성하는 주된 민족 이외의 여타 민족을 소수민족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소수민족이란 현재의 입장에서 주민족에 비해 소수라는 말이지 해당 지역에서 처음부터 소수민족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는 소수민족화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 적대민족과의 대결이었으며, 이 대결은 11세기 홍하 델타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장기왕조가 성립된 이래 계속되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으며 15세기까지 베트남의 승리로 결말이 나고 있었다. 참파인들은 대거 포로로 잡혀 홍하 델타 베트남인들 사이에 分插되거나, 서부 고원지대로 피신하거나, 더욱 남쪽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바다로 나가 멀리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떠났고, 베트남에 남은 참파인들은 중부의 일부지역에 작은 公國으로 몰락해 명맥만 유지해 갔다. 11세기부터 시작된 중부지역으로의 본격적 진출에서 베트남 정권은 屯田 설치나 立邑 정책을 통해서 중부지역을 베트남화해 갔다. 1648년 베트남이 북부와 남부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 남부 정권이 북부정권과의 전투에서 사로잡은 포로 30,000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전형적인 식민 형태를 보게 된다. 남부정권의 주된 고려는 베트남의 군사적 압력에 의해 비워진 이전 참파 땅에 베트남인들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었다. 중부에 위치한 현재 푸옌(Phu Yen, 富安) 省 지역에 徙民을 하게 되는 이유가 大南寔錄前編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이전에 이 지역은 참야만인들의 땅이었다. 현재 인구는 희박하지만 땅은 넓다 [...] 우리가 [포로들을] 이 땅에 심고 [...] 그들로 하여금 버려진 땅을 경작케 하자.” 이에 따라 반년치의 식량을 주고 50명을 한 단위로 묶어 한 개 마을을 형성하게 했다(大南寔錄前編, 3:14b-16a). 이렇듯 중부 평원지대에서의 베트남화란 군사작전에 의한 영토 획득과 선주민 제거에 이은 베트남인의 이주라는, ‘지역의 베트남화’가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부베트남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17세기 말까지 이곳에는 크메르인을 비롯하여, 베트남인들의 압력에 의해 중부로부터 밀려 내려온 일부 참파인, 그리고 말레이 계통의 므농(Mnong), 찌러(Cho Ro), 쓰띠엥(S'tieng) 등의 민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다. 물론 베트남인들도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이주는 초기 단계였다. 17세기 말 중국에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인에 의해 淸나라가 들어서면서 수천명의 명 유민들이 남부베트남으로 들어왔다. 이후 淸朝 지배하 중국으로부터의 이주민도 줄곧 유입되었다. 1698년에는 남부를 관할하는 자딘(Gia Dinh, 嘉定) 府가 설립되면서 남부지역이 베트남 영역 내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베트남인들의 본격적인 이주는 주로 18세기 동안 이루어졌다. 그들의 정착 형태는 중국인과

크메르인을 포함하는 선 거주민 사이 間隙地에로의 비교적 평화로운 이동이 있었다. 18세기의 자 단은 크메르인, 중국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말레이계 소수 민족을 포괄하는 베트남의 다민족 영역이었다.

18세기말 이 자 단에 한 정권이 수립된다. 1771년 베트남 중남부 떠이 썬(Tay Son, 西山)에서 반란이 일어나 16세기부터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베트남은 내전 상황으로 치달게 되었다. 떠이 썬 군에 의해 베트남 거의가 장악되고 남과 북의 마지막 지배자들이 차례로 살해당하며 베트남이 통일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남북 분열기 남쪽을 지배하던 응웬(Nguyen, 阮) 家の 한 생존자 응웬 푸크 아인(Nguyen Phuc Anh, 阮福映, 1762~1820, 후에 자 롱 <Gia Long, 嘉隆> 帝, 1802~1820)이 떠이 썬 세력에 맞서는 정권을 자 단에 수립하는 것이 1788년이었다. 이 자 단 政權에 의해서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현재의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를 동시에 지배하게 된 왕조 응웬(Nguyen, 阮) 朝(1802~1945)가 수립되었다. 자 단 政權은 남부베트남인들이 주도한 정권이었으며³⁾ 남부가 갖는 다민족 공존의 전통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중국인, 크메르인은 물론 쓰피엣을 비롯한 이외의 선주민들이 자 단 政權과 자 단 政權의 군대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다. 응웬 朝 초기 남부베트남은 嘉定城(Gia Dinh Thanh, 자 단 타인)으로 명명되었으며 嘉定城總鎮(Gia Dinh Thanh Tong Tran, 자 단 타인 통 쩐, 1808~1832)이라고 하는 행정조직 하에서 이들 소수 민족들과 베트남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공존 관계가 유지되었다. 중국인 이주민들이 지역정권에 참여하고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였다.⁴⁾

그런데 이런 남부에서 우리는 1841년부터, 즉 민족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정권에 의해서 응웬 朝가 수립된지 40여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부터 6년 동안 크메르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극심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3) 응웬 푸크 아인이 태어난 곳은 중부였지만 그 역시 남부인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 그가 떠이 썬의 난을 피해 阮氏 정권의 수도 푸 쑤언(Phu Xuan, 富春, 현 후에, Hue)을 떠나 자 단으로 들어간 건 1775년으로서 그가 13살이 되던 해였다. 그는 청소년기, 청년기의 대부분을 자 단에서 자 단 人에 둘러싸여 보냈다. Choi, p. 31 참조.

4) 嘉定城總鎮의 성격과 嘉定城 시기 남부 사회에 대해서는 줄고 “베트남 阮朝(1802~1945) 초기의 嘉定城總鎮 - 明命帝와 總鎮官 黎文悅의 관계를 중심으로 -,” 慶大史論 第8輯(1995, 6) 참조.

발견한다.

이 소요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이렇다할 해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여러 민족들 중 크메르인들의 소요는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남부베트남에서의 크메르인들의 반란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 일련의 반란에서 민족적 갈등이란 면을 무시하고 이를 19세기 봉건정권에 대한 농민반란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응웬 판 쩡(Nguyen Phan Quang)의 *Phong trao nong dan Viet Nam nua dau the ky 19*(19세기 전반 베트남 농민운동) (Hanoi, 1986)에서는 크메르인들의 반란이 지주와 봉건관료들에 저항하는 농민운동으로 기술되어 있다(Nguyen Phan Quang, 143). 이런 태도는 주로 베트남 사학자들 사이에서 보이는데, 다민족 국가라는 정책원칙과 아직까지는 19세기 왕조를 반동적인 봉건왕조로 규정하는 베트남 사학계의 정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크메르인들의 반란을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태도이다. 베트남 역사나 캄보디아 역사 공히 1835년에 있었던 베트남의 캄보디아 합병은 19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동화정책과 베트남에 대한 캄보디아인들의 저항에 주로 관심을 가져 왔다. 베트남인들과 캄보디아인들의 충돌은 베트남인들이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왕권, 종교, 지역 지도자 등을 제거하려 한 데에 대한 캄보디아인들의 저항이었으며 캄보디아에서의 변란이 남부베트남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되었다(Chandler, 130). 같은 시각이기는 해도 우드사이드는 캄보디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남부베트남에서 소요가 시작되었다는데 좀 더 주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반란이 남부베트남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된 것은 베트남 정권이 남부베트남에 존재하던 캄보디아인 지도자들에게 가혹한 정책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남부베트남의 캄보디아인 반란은 改土歸流,” 즉 “[세습적] 원주민 [수장들]을 바꾸어 [임명된] 순회 [관료들]로 돌리는”, 아주 독특한 중국화 과정에 의해 자극되었다”(Woodside, 251).

그러나 본인으로서의 캄보디아의 반란이나 이 改土歸流에서 비롯된 남부베트남 내 크메르인 수장들만의 불만이 동으로부터는 사이공 북부의 띠이닌(Tay Ninh, 西寧) 지방으로부터 서로는 시암만에 연한 하 띠엔(Ha Tien, 河僊)

지역까지 6년에 걸쳐 크메르인들의 소요를 유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부에서의 소요에 크메르인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중국인과 여타의 소수민족까지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1841~1846년 사이 남부의 소요가 캄보디아 반란으로부터의 수평적 확산이나 改土歸流의 수준을 넘어서, 베트남 내부에 있던 어떤 적극적인 자극에 의해서 촉발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1841년까지 남부에서 행해진 제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동안 베트남 역사연구자들 사이에서 간과되어 왔던 한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1830년대 중반 경, 응웬 朝의 제 2대 황제 민 망(Minh Mang, 明命, 1820~1841) 帝 시기부터 남부베트남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지극히 공격적인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크메르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닌 남부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소수민족들에 대한 베트남화 정책이었다.

이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남부베트남 내 민족간 긴장의 뿌리를 추적해 보기로 하자. 본 글에서는 먼저 동화정책의 필요성을 자극했던 남부베트남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남부베트남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화정책이 실시되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화정책이 초래한 베트남인과 비베트남인 사이의 민족적 대립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동화의 이념

1. 다이 남 (Dai Nam, 大南) 帝國의 민족적 구성

민 망 帝의 소수민족 정책은 그의 직접 지배 영역의 확대 작업과 관련이 있다. 응웬 朝가 건국된 이후 1832년까지 남부베트남은 嘉定城總鎮이라고 하는 행정체제 하에서 반독립적인 상태로 지배되었다. 덧붙여서 베트남의 조공국이었던 캄보디아에 대한 통제권도 이 남부베트남의 지배자인 嘉定城總鎮官에게 있었다. 嘉定城總鎮官은 남부 출신으로서 자 롱(Gia Long, 嘉隆)

帝의 가까운 무관들이 임명되었다. 그 중에서 레 반 주엘(Le Van Duyet, 黎文悅)은 가장 오래(1812년, 1820~1831년) 남부를 지배했던 인물이었다. 이 남부인의 지배하에서 남부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전통적인 다민족 공존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존재했으며 특히 중국인 이주민 사회는 레 반 주엘의 비호 하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레 반 주엘 사후 민 망 帝는 嘉定城總鎮을 해체하고 남부를 6개의 쑤으로 분할하여 직접 지배지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1833~1835년 소수민족들과 연계한 남부베트남인들의 반란이 있었으나 중앙 조정측은 성공적으로 이 반란을 진압하고 직접지배를 확립했다. 이 반란은 레 반 주엘의 양아들 레 반 코이(Le Van Khoi)가 주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 반 코이의 반란이라고 불린다. 반란을 진압한 해 응웬 朝는 캄보디아를 합병하고 이곳에 쩌 떤 떠이(Tran Tay, 鎮西) 城을 설치함으로써 베트남의 영토를 대폭 확대시켜 놓았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동화정책의 출현과 관련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응웬 朝 시기 국호의 문제와 그 함의를 먼저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응웬 朝가 성립될 당시부터 국호의 문제는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관념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국호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 단 政權의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고려했던 것은 자신들이 지난 2세기간 분열되어 있던 남북 베트남을 통일했다는 사실이었다. 1802년 “남 비엣(Nam Viet, 南越)”이라는 국호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응웬 朝의 사료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이 조정은 安南의 영역뿐만 아니라 越裳의 영역도 소유했다. 이는 이전의 [작은] 陳 [13세기~15세기 존속하던 베트남 왕조]이나 黎 [15세기~18세기 존속하던 베트남 왕조]의 영역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국호는 安南에서 南越로 바뀌어야 한다(大南正編列傳初集, 11:2a).

여기서 안 남(An Nam, 安南)이란 북베트남 현재 하노이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었던 레(黎) 왕조의 대중국 공식 국호였으며 비엣 트엉(Viet Thuong, 越裳)은 베트남 중부지역에 과거 존재했던 참파의 중국측 고대 명칭이었다. 16세기부터 레 朝의 실권은 쩌(Trinh, 鄭) 氏에 의해 장악되고, 같은 세기 레 朝의 판도 남쪽 변방 즉 당시 베트남의 판도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참

과의 옛 영토지역은 응웬(阮) 氏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후 응웬 氏는 줄곧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독립된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베트남은 쩐-응웬 氏 지배하의 남북 베트남으로 분열되었다. 19세기 남북의 통일이란 과거 안 남과 비엠티영 지배지역을 합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국호는 안 남과 비엠티영으로부터 한 단어씩 차용하여 조합한 남 비엠티(Nam Viet, 南越)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 남 비엠티이란 명칭에는 남부베트남의 존재가 완전히 투영되어 있지 않았다. 원래 베트남인 지역이었던 북부와 참인 지역이었던 중부 지역은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크메르인과 말레이계 민족들이 살고 있던 남부베트남까지를 완전히 포괄하는 명칭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웬 朝를 수립한 주체였던 남부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중국과의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국호는 남 비엠티의 순서를 바꾼 비엠티 남(Viet Nam, 越南)으로 제정되는데⁵⁾ 이에 대해 자 단 政權의 중요한 일원이었던 남부 출신 쩐 화이 득(Trinh Hoai Duc, 鄭懷德)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엠티 남이라 하면 더욱 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엠티영의 땅을 먼저 취했고, 그 다음에 안 남 지역을 거기에 더했기 때문이다”(鄭懷德, 132). 응웬 朝의 건국 이후 중앙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왕국이 참의 비엠티영 지역에 수립된 阮氏 영역과 안 남의 중심지를 포괄한다고 생각하는 남부베트남인들에게 비엠티 남이란 명칭은 실재를 그리 크게 왜곡하는 국호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1832년 남부가 조정의 직접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민 망 帝와 그의 북, 중부 출신 문신 관료들은⁶⁾ 국호 비엠티 남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게다가 1835년엔 캄보디아가 베트남 영역으로 새로 더해졌다. “비엠티 남,” 즉 안 남과 비엠티영의 남쪽으로 남부베트남과 캄보디아가 덧붙여진 것인데 남부베트남이 17세기까지도 캄보디아의

5) 이 과정에 대해서는 正編2, 23:1b-2a를 볼 것. 淸朝의 입장에 대해서는 淸史稿校註, 12103.

6) 1820년 민 망 帝가 즉위한 이후 남부 출신들은 점차 정치권력에서 배제되며 그대신 북, 중부 출신의 문신 관료들이 과거를 통해 대거 중앙조정에 진출했다. 민 망 帝가 嘉定城總鎮 해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역할이 있어서 가능했다. 문신 관료층의 등장에 대해서는 Smith, p. 156.

변방지대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과거 캄보디아의 영역 전부가 “비엣 남”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엣 남이란 국호는 베트남 영역의 일부를 지칭하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명칭과 실제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1838년에 새로운 국호를 제정하게 된다.

이 왕조는 남쪽으로 모든 지역을 소유하게 되었다. 경계의 동쪽은 남해에 연결되어 있고 멀리 서쪽 바다에까지 이른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우리 영역에 들어와 있으며 해변으로부터 산골까지의 모든 땅은 우리 영역에 복속되어 있다. 원래 비엣 남이라 칭했으나 이제 다이 남(大南)으로 칭한다면 이름과 뜻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正編2, 190:1b-2a).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다이 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호는 기본적으로 남쪽으로는 지배권 확대와 관련이 있다. 남쪽을 다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남부베트남과 그에 연결된 캄보디아까지 직접 지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렇게 될 때, 응웬 朝의 새로운 국호 다이 남이란 과거 독립적이었던 세 지역, 즉 베트남인의 안 남, 참인들의 비엣 트엉, 그리고 과거 캄보디아의 영역을 새로이 한데 지배하게 되었다는 의식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 남의 출현시기까지 베트남제국은 3중의 민족적 環狀構造로 이루어졌었다. 중앙에는 베트남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베트남 영역 내에 있던 소수민족, 그리고 마지막은 조공국가들로서 현재 라오스에 있는 두 개의 공국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 고원지대에 있던 투이 싸(Thuy Xa, 水舍), 화 싸(Hoa Xa, 火舍), 즉 자라이(Jarai) 부족, 그리고 캄보디아였다. 우드사이드는 응웬 朝가 중국식의 조공질서 유지를 갈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갈망은 민 망 帝가 실제조차 불분명한 자라이 부족들의 주술자적 지배자까지 왕으로 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Woodside, 238). 그러나 민 망 帝는 중국적 조공체제의 유지를 그렇게 강하게 열망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그의 지배 초기에는 중국적 조공체제를 유지할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1820년대 말부터는 달라졌던 것이 틀림없다. 1827년 베트남은 현 라오스 지역에 있던 베트남의 조공국 반 뜨엉(Van Tuong, 萬象, 현 브양트안 지역)의 내적 분쟁에 간여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해 민 망 帝는 이 조공국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만다(大南正編列傳初集, 33 萬象).

1838년에 민 망 帝는 반 뜨엥의 북쪽에 있던 남 쩌엥(Nam Chuong, 南掌, 루앙 프라방 지역)을 변변한 국가라기 보다는 “단지 변방 너머 후미진 곳에 있는 조그만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正編2, 189:9a), 이 해 남 쩌엥의 조공사절이 방문했을 때 이를 거절한다(大南正編列傳初集, 33, 南掌). 민 망 帝가 1834년과 1838년 두 번에 걸쳐 자라이 수장에게 왕의 칭호를 수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834년의 기록을 보면 민 망 帝는 이미 자라이의 실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주 궁벽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끈을 꼬아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관리들로 하여금 이곳을 수차 방문하게 하여 자라이가 거의 원시 수준의 조그만 부족이라는 사실도 확인한다(大南正編列傳初集, 32, 水舍, 火舍).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민 망 帝 자신이 진지하게 자라이를 한 조공국가로 여겼다고 믿기는 힘들며, 자라이 지도자들에 대한 응웬 朝의 封王 예를 응웬 朝가 중국적 조공체제를 유지하려 했다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민 망 帝는 조공체제를 유지하는데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았다. 캄보디아 합병이야말로 그가 조공체제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민 망 帝에게 중요한 것은 영토 확장이었으며 그의 주된 관심 대상은 확대된 영역을 구성하게 된 베트남인과 소수민족들이었다. 그의 동화정책은 영토 팽창에 수반하여 수적으로 증가한 소수민족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9세기 전반 베트남 사회 구성의 실체를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던 “紳弁漢土(than bien han tho, 턴 비엔 한 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흔히 유교국가들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士農工商(si nong cong thuong, 씨 농 공 트엥)”의 분류방식도 베트남은 차용하고 있었으나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남부베트남에서는 그 정도가 더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현재 사이공 근처에 살던 한 가족의 족보인 張嘉祀堂世譜全集을 살펴보면 한 집안에서 관리, 악공, 농부, 상인, 장인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⁷⁾ “士農工商”이란 분류법보다 더 실질

7) 예를 들어 쩌엥 민 카인(Truong Minh Khanh, 張明慶, 1792~1859)은 유학자이며 縣의 관리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樂工이었다(p.5). 쩌엥 민 쩡(Truong Minh Trung, 張明忠, 1758~1823)은 농부였는데 그의 아들은 학자가 한 명, 농부가 네 명, 그리고 상인이 한 명이다(pp. 3; 6-7). 쩡의 셋째 아들 쩌엥 민 다이(Truong Minh Dai,

적인 의미를 갖는 분류는 “紳弁漢土”였다. 먼저, 백성은 국록을 먹는 자들과 일반인들로 나뉜 후에 전자는 붓을 쥐 자와 칼을 든 자들로 다시 나뉘고 후자는 漢人과 土民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여기서 漢人은 베트남인이며 土民은 토착민, 즉 베트남인들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인들이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미리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土民 또는 土人이란 중부베트남에서는 참족을, 남부베트남에서는 크메르인들을 가리켰다. 그 외 주로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蠻이라 칭해졌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용법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19세기의 용법에 의하면 참족과 크메르인들도 蠻이라고 칭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漢”에 대비될 경우 “土”는 통상 토착민 혹은 야만인을 의미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 베트남 영역내의 인구가 베트남인과 비베트남인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19세기 전반 확장된 영토 내 베트남의 민족적 다양성에 대한 일반적 고려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남부베트남의 상황

민 망 帝 시기 소수민족 동화정책이 남부에만 도입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우선 캄보디아에서 적극적인 베트남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중부나 북부베트남 변경지대에 있던 여타의 소수민족도 동화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는 남부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졌다. 그 이유는 남부베트남의 민족적 구성 특성 때문이었다. 앞에서 말한대로 베트남인들이 들어오기 전 이곳에는 크메르인들이 다수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군의 말레이인들과 마, 찌러, 쓰띠엥, 므농, 참 등의 민족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 19세기 중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越南輿地志에 따르면, 당시 북베트남에는 22개, 중부베트남에는 15개, 남부베트남에는 8개의 “蠻土人種”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베트남인과 중국인을 제외하고 52개의 소

張明代, 1800~1841)는 농부였지만 그의 둘째 아들 쓰영 민 풍(Truong Minh Phung, 張明鳳, 1832~1874)은 자라서 匠人이 되었으며(pp. 6; 14) 知府 쓰영 민 니으엥(Truong Minh Nhuong, 張明讓, 1793~1852)의 외아들 쓰영 민 득(Truong Minh Tuc, 張明足, 1829~1886)은 자라서 상인이 되었다(pp. 10; 21).

수민족이 있다고 하니 이 두 민족을 포함하지 않은 蠻土人種이 당시 45개였다면 이 책의 관찰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 남부베트남 8개의 민족 중에는 먼저, 현재까지 남아 있는 6개의 민족, 즉 마, 쩌러, 쓰띠엥, 므농, 크메르, 참인이 있었을 것이고, 베트남인들이 중국식 표기방법을 차용하여 “閩婆人”이라고 지칭하던 말레이인들과 또 다른 어떤 잊혀진 민족이 나머지 두 개의 “蠻土人種”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베트남인들이 선주민들 사이 間隙地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17세기 중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이 토착민족들 사이에 끼어서 살았다. 이에 비해서 북, 중부 베트남의 소수민족들이란 대부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캄보디아는 파견된 베트남인들이 들어가 캄보디아인들에게 동화정책을 실시했던 경우라 비교적 동화의 주체와 객체의 거주 경계가 분명했다. 이에 반해 남부베트남에서는 평지에 베트남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間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가장 복잡하게 보였던 지역이었다. 응웬 투(Nguyen Thu, 1797~1854)가 1847년 이후에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寰宇紀聞에 따르면 남부베트남 40개 縣 중 14개 縣(35%)이 크메르인이나 여타의 蠻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에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동화정책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남부베트남 지역이 비베트남인 지역이었던가를 암시하는 예이다. 현재 크메르인들은 상부 메콩강 이서 지역인 쑹 쩡(Soc Trang)이나 짜 빈(Tra Vinh, 茶榮)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1840년대 이전까지는 상부 메콩의 동쪽 현재 미 터(My Tho, 美湫)를 省都로 두고 있던 딘 뜨엥(Dinh Tuong, 定祥) 省이나 사이공 지역을 省都로 두고 있던 자 딘(Gia Dinh, 嘉定) 省 지역에도 크메르인 거주지역이 틀림없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본다. 사이공 북서쪽으로는 1836년에 떠이 닌(Tay Ninh, 西寧) 府가 설치되었는데 당시 이곳에는 1천여의 크메르와 참 戶口가 있었다고 한다(正編2, 171:31a). 우리가 곧 보겠지만 딘 뜨엥 성 남부에도 역시 크메르인들이 살고 있었다. 만약 1835년에 시암만에 면해 있던 하 띠엔(Ha Tien, 河僊) 省을 어떤 외국인이 방문했다면, 그는 이곳이 베트남의 일부라고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크메르인과 중국인의 숫자는 베트남인의 두 배가 넘었다(正編2, 159:12a).

남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민 망 帝의 동화정책은 중요한 변화였다. 민족적으로 다양한 남부베트남에서 그들은 이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배워왔으며

자 딘 政權이나 嘉定城總鎮 하에서 늘 지배자들은 그것을 강조해 왔다. 1830년대 중반 동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민 망 帝는 다음과 같이 이전의 대 소수민족 정책을 요약하고 있다. “여지껏 蠻獠들에 대한 조정의 정책은 羈縻였을 따름이다”(Minh-Menh Chinh-yeu, 24:6b). 당연히 이는 전대까지의 간접 지배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이 羈縻 대신 새로운 방식을 실시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었다. 자 딘 政權의 지도자이며 민 망 帝의 父王이었던 자 룡 帝의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는 그의 “漢夷有限”이란 말에서 잘 드러난다(正編1, 5:23b). 여기서 “漢”이란 앞서도 말했듯이 19세기의 용법에서 ‘베트남인,’ 혹은 ‘베트남적’인 것을 뜻하며, 거기에는 한자와 유교, 그리고 대승불교를 포함하는 동북아 공통의 문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漢夷有限”이란 쉼의 것이 아니라 따로 살면서 스스로의 전통이나 풍속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1811년 하 띠엔(Ha Tien, 河僊)에서 베트남인, 중국인, 크메르인, 그리고 말레이인 無籍者들을 모아 토지를 개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을 때 자 룡 帝가 현지 관리에게 가장 강조하던 당부는 그들로 하여금 따로 살게 하라는 것이었다(正編1, 43:5a). 그러나 동화정책의 시작과 더불어 남부인은 베트남 문화 전파의 전위로 인식되게 된다. 북, 중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는 동화를 수행하던 주체가 주로 베트남인 관리였는데 비해 남부에서는 이렇듯 일반인이 베트남화 작업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야 했던 것이다.

III. 동화의 유형

1. 교육

북부 출신의 문관으로서 1830년대 중반 남부의 빈 룡(Vinh Long, 永隆) 省에서 동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던 하 꾸엔(Ha Quyen, 河權)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민 망 帝에게 제안한다. 이에 대한 민 망 帝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민 망 帝가 구상하고 있던 원칙과 그 원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던 이 시기 동화정책의 구체적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하 꾸엔은 이 성 관할의 “土民”으로 하여금 “漢字”를 배우게 하여 “漢風”에 익숙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상호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몇몇 베트남인(“漢人”)으로

하여금 먼저 “番字”를 배우게 한 연후에 크메르인 자제들을 베트남인들의 縣學이나 府學으로 와서 학습하게 하자고 했다. 여기에 대한 민 망 帝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만약 漢人이 먼저 番字를 배운다면 그것은 用夏變夷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永隆, 安江, 河僊에서는 土民의 자제들로 하여금 府와 縣의 教授, 訓導에게로 가서 漢字를 배워 비속한 풍습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 자신들의 승려들에게 가서 배우는 것을 금하도록 하라. 누구든지 漢字를 배운 자는 촌장으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도록 하게 하라. 그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漢人言語, 의복, 음식들을 배우게 하라(正編2, 14b-15a).

이 인용문에서 보자면, 크메르인들에 대한 동화의 본질이란 그들에게 한자, 베트남어, 의복, 식생활까지 베트남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크메르 촌락의 정신적 중심이 되는 절의 전통적인 교육기능을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비베트남인을 동화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되었는데, 그것은 남부인들로 하여금 비베트남인과 섞여 살게 하는 것이었다. 이 雜居에는 민족에 따라 다른 방식들이 적용되었다. 나는 민족적 배경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가장 인구가 많았던 크메르인들로서 그들은 델타지역에 살고 있었다. 둘째는 주로 비엔 호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배후에 산지 지대를 두고 있던 쓰띠엥 등의 소수민족들이다. 이들 두 유형의 벵농사 민족들에게는 행정단위인 村(thon, 톤), 社(xa, 싸), 總(tong, 똥), 縣(huyen, 후엔) 등에서의 병합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은 중국인 이주자들로서 베트남 정부는 그들의 조직인 社나 幫(bang, 방)에 대한 조작으로써 동화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면 각 집단에 따른 동화의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 크메르인의 동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접한 베트남인 촌락들과 크메르인 촌락들을 한데 묶어 새로운 베트남 행정 단위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1833년 떠이 닌 府

관할 하에 락 닌(Tan Ninh, 新寧) 縣이 설치되었을 때 이 지역에 있던 25개의 크메르 촌락들이 원래 빈 즈엥(Binh Duong, 平陽) 縣과 투언 안(Thuan An, 順安) 縣에 속해 있던 6개의 베트남인 촌락들과 합쳐진다. 이 작업, 즉 31 개의 베트남, 크메르 촌락을 한데 묶어 2개의 혼합된 總이 락 닌 縣 산하에 만들어졌다. 말 할 필요도 없이 이 때 總長들은 모두 베트남인들이었다(正編2, 171:33a).

또 다른 방법은 순수한 크메르인 현을 민족적으로 혼합된 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크메르 전통이 강했던 빈 롱 省 남부에서 행해졌다. 한 크메르 현에 인접한 몇 개의 베트남인 촌락을 이 현에 편입시켜 버리면서 대신 이 현에 속해 있던 몇 개의 크메르 촌락을 떼어 내어 인접한 베트남인 현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다. 1835년, 베트남인 현 빈 쩌(Vinh Tri, 永治) 산하 20개 마을을 포괄하는 두 개의 總이 크메르인의 쩌 빈(Tra Vinh, 茶榮) 縣에 부속되었다(Dai Nam Nhat Thong Chi, 5:128). 동시에 이 쩌 빈 현에 속해 있던 한 개의 總은 베트남인 현인 빈 쩌 縣으로 편입되었다(正編2, 155:20a).

한 크메르 현을 인접한 베트남인 현에 통째로 흡수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안 장(An Giang, 安江) 省 산하의 응옥 루엣(Ngoc Luar, 玉律) 縣은 크메르인들의 현이었다. 그러나 1839년 이 현은 베트남인의 락 쑤옌(Tay Xuyen, 西川) 縣으로 흡수 통합되었다(正編2, 208:8b).

네 번째의 방법은 크메르 거주지 가운데 베트남 촌락들을 건설하는 것이다. 1840년 안 장 省 산하 하 즈엥(Ha Duong, 河陽)과 하 엄(Ha Am, 河陰) 두 개 현이 이전 크메르인 현 지역에 만들어졌을 때 민 망 帝의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漢人들로 하여금 이 새 현들 안에 자신들의 촌락을 건설하게 하라 [...]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이 살고 같이 경작함으로써 서로 모방하도록 하게 하라”(正編2, 208:9b). 그러나 민 망 帝의 의도란 서로 모방하게 함이 아니라 크메르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베트남인들의 방식을 배우게 하려 함이었을 것이다.

동화의 과정에서 주된 희생자는 크메르인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다. 몇 가지의 예를 통해 동화가 시작된 이래 크메르인들이 자신의 땅을

떠나야 했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1830, 40년대 이전 상부 메콩 이동 지역에 크메르인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는 바 껏 寺(Chua Ba Ket)로서 원래 이는 크메르인들에 의해 세워진 절이었다. 후인 민(Huynh Minh)에 따르면 이 절은 미 터(My Tho)의 남쪽에 위치한 쩌 가오(Cho Gao)로부터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절이 세워진 것은 1770년대였다(Huynh Minh 1969, 158). 크메르 습속에 의하면, 절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주위에 크메르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후인 민은 다시 1960년대 이전, 베트남인 절이 같은 위치에 세워졌다고 얘기하지만 두 시기 즉 절이 세워졌던 1770년대와 자신이 베트남 절을 소개한 1960년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비엣 껏(Viet Cuc)이 1960년대 남부 지역에서 크메르인 거주지와 관련하여 수집한 두 가지 사례로부터 우리는 이 주변 지역에 살던 크메르인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 고 쩡(Go Cong)은 쩌 가오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남아 있는 두 개의 지명 중 탐(Giong Thap)과 종 쉐(Giong Xe)는 이곳이 크메르인 거주지역이었음을 암시한다. 종 탐이란 ‘탐(塔)의 평원지대’라는 뜻이고 종 쉐란 ‘수레의 평원지대’란 뜻이다. 1960년대 이곳에 살고 있던 베트남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종 탐에는 탐(塔)과 더불어 크메르 절이 하나 있었으며 종 쉐는 크메르 스타일의 바퀴가 큰 물소 수레(xe trau, 쉐 쩌우)를 생산하던 지역이었다고 한다(Viet Cuc, 32-33). 비엣 껏은 우리에게 이 원크메르인 거주지에 대한 두 개의 일화를 수집해 남겨 주었다. 이 일화를 주의깊게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크메르인들이 언제 이 지역을 떠났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비엣 껏에 의하면 1909년경 두 명의 크메르인 승려가 종 탐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역을 찾은 것이며 당시 나이는 80이 넘었다(Viet Cuc, 33). 이 두 승려들의 나이와 그들이 종 탐을 찾은 연도로 계산해 볼 때, 그들이 종 탐을 떠난 것은 1830~1840년대였다. 비엣 껏에 의하면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을 찾았던 1909년경 그들의 마을과 절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물론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이미 베트남화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일화는 고 쩡 출신의

한 악사가 만난 어떤 크메르 노인에 대한 것이다. 이 악사가 1929년 한 악극단을 따라 남부지방을 여행하고 있을 때 당시 80세가 넘는 이 크메르 노인의 방문을 받게 된다. 노인은 악사가 고 쩡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향 소식을 묻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비엣 꾸에 의하면 노인이 태어난 곳은 종 탑이며 자신이 7~8세 때 그곳을 떠났다고 한다(Viet Cuc, 34). 그렇다면 이 노인이 종 탑을 떠난 것은 1840~1850년이 된다. 앞서 소개한 두 크메르인 승려들이나 악사를 찾아온 이 크메르 노인 모두 고향을 등진 건 동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크메르인들의 반란에 의한 크메르-베트남인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시기 또는 그 직후였다. 앞서 소개한 바 껏寺 주변에 살고 있었을 크메르인들이 고향을 등진 것도 이 시기라고 생각된다.

응웬 朝 조정이 사용한 또 하나 흥미로운 베트남화 수단은 소수민족의 祭儀를 말살하는 것이었다. 이민족 지배자들의 제사가 베트남 양식에 의해 베트남인에 의해 치러졌다. 응웬 朝의 수도 후에(Hue)에 캄보디아 왕들의 사당이 건축된 것은 1840년이였다. 이때부터 캄보디아 왕들은 베트남제 혹은 중국제 향 연기가 가득한 사당 안에서 베트남 음식이 진설되어 있는 제단을 앞에 하고 베트남식 의식에 의하여 제사지내졌으며, 그들의 위패는 자신들이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후에에 자신들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 베트남식 건축양식으로 세워진 사당 안에 모셔지게 된 것이다. 얼마 안가 참파 왕들에 대한 제사도 베트남화 되었다(正編2, 213:26; 正編3, 13:2a).

비베트남인의 제의에 대한 베트남화가 중앙정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는 남부베트남의 일반 베트남인들에 의해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크메르인들의 절이 있었던 곳에 베트남인들의 절을 짓는 것이었다. 앞서 소개한, 쩌 가오의 바 껏寺의 베트남화가 그 한 예이다. 베트남인 승려, 리에우 통(Lieu Thong, 1753~1840)의 업적 중의 하나도 이 유형을 보여준다. 풍 썬(Phung Son)寺는 남부베트남 끼이 마이(Cay May)에 있는 절이다. 리에우 통은 최초로 조그만 암자를 한 크메르 절 폐허 위에 세웠으며 이 암자가 1840년까지 커다란 베트남 절로 발전했다(Nguyen Lang, 334). 좀 더 과격한 동화 방법도 있었다. 현재 남부베트남에는 캄보디아와의 국경지대인 찌우 독(Chau Doc, 朱篤)에 바 쭈아 쓰(Ba Chua Su)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하나 있으며 이 절이 있는 씬(Sam)山에는 돌로

만들어진 여신상이 베트남식인지 중국식인지 모를 옷을 입고 있다. 1960년대 남부베트남의 연구자 레 호영(Le Huong)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이 여신의 원형은 원래 캄보디아인이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한 캄보디아 여인이 남편을 찾아 이곳으로 왔으며 그 뒤에 그녀는 이 산 위에서 영험한 돌로 화했다는 것이다. 레 호영은 베트남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여인이 베트남인 아니면 중국인이라 믿으며 약 1세기 이상을 경배해 왔다고 적고 있다(Le Huong, 50-51). 레 호영의 조사와 관찰을 바탕으로 할 때, 베트남인들이 이 크메르 석상, 아니면 크메르인의 신앙대상에 베트남 옷을 입힌 것은 1830년대 동화정책이 시작되고 부터였다고 생각된다.

3. 비엔 호아의 소수민족들

비엔 호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동화 방식은 소수민족 거주 단위를 베트남의 행정제도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은 1837년에 있었던 민망 帝의 지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성의 蠻人들은 궁벽한 산간지대에 살아 왔다. 여지껏 이들에 대한 조정의 정책은 羈縻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내 땅 안에 들어와 있으니 역시 내 백성이다. 때문에 우리는 경작하는 방법으로부터 言語, 衣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점차 夷習을 잊게 하고 漢風에 물들게 하라. 앞으로 적당한 곳을 택하여 마을을 건설하게 하고 그들을 登籍시키도록 하라. 이것이 用夏變夷의 요체이다(正編2, 182:2).

동화의 과정이 이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소수민족 지구를 다이 남 영역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소수민족들은 베트남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蠻人일 뿐이며 아직 베트남인들 외곽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히 다이 남의 백성이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풍속이 이 “蠻人”들에게 소개될 것이다. 이후에 그들의 거주지역은 베트남 이름을 가진 베트남 촌락으로 재구성되며 마지막으로 베트남 정부의 문서에 등록됨으로써 베트남인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하여 살

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단계는 비엔 호아 소수민족들을 守(thu, 투)라고 하는 자치적인 공동체로 조직하는 것이다. 1840~1849년 동안 일부 쓰띠엥족이 다이 남에 “귀부”하였을 때 그들은 4개의 守로 재조직되었다. 전형적인 패턴이 이 예에서 보여지는데, 그들이 다이 남에 공식적으로 “귀부”하기 이전에 그들의 소규모 거주지들은 柵(sach, 싸익)이라고 불리어졌다. 1840년 33개의 쓰띠엥 柵은 띠엔 러이(Tan Loi, 新利), 띠엔 딘(Tan Dinh, 新定) 등 두 개의 守로 재편되었다. 1841년 28개의 쓰띠엥 柵은 띠엔 빈(Tan Binh, 新平) 守가, 22개의 쓰띠엥 柵은 띠엔 투언(Tan Thuan, 新順) 守가 되었다(欽定大南會典事例, 44:18-19). 여기서 “귀부”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 베트남인들이 柵이라고 부르던 소수민족들의 거주지를 묶어 守로 만든 것을 이름이라 생각된다. 寶宇紀聞에 의하면 409명의 丁과 그 가족들로 이 4개의 守가 만들어졌다고 하며, 이에 따라 비엔 호아 성은 공식적으로 2개의 府와 4개의 守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즉 쓰띠엥 사람들이 공식적인 행정체제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새로 들어온 쓰띠엥 족은 자신들 고유의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Nguyen Thu, 卷3).

또 다른 사례는 이 守의 조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1842년 비엔 호아 성의 관리들은 28개의 쓰띠엥 柵이 “登籍되어 세금 내기를 원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성 관리의 제안으로 통 빈(Thong Binh, 通平) 守가 만들어졌고 이 守에는 베트남인들이 파견되었다. 베트남인이 이 守의 우두머리인 守禦가 되며 그 아래로는 또 다른 베트남인 관리, 그리고 네 명의 베트남인 군인들이 있었다(正編3, 14:4). 소수민족 구성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守라는 단위로 묶여 살게 됨으로써 베트남이나 그 습속, 즉 漢風과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접촉이 시작되었던 셈이다.

때때로 守內 베트남인의 자리들은 성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동화작업에 공헌한 베트남인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했다. 비엔 호아 성에서는 한 자원자와 그의 다섯 동료들을 쓰띠엥 지역에 보내 베트남 행정체제에 들어올 것을 설득하게 했다. 설득이었던지 폭력 혹은 기만에 의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1843년 90명의 丁을 가진 20개의 柵이 한 개의 守로 재조직 되었

다. 이 공로로 守禦의 자리는 이 자원자에게 주어졌으며 그의 동료 다섯도 정부측 대리인으로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되었다(正編3, 30:22b).

얼마 되지 않아 각 守는 베트남의 정식 행정 단위인 總이 되었다. 1859년 프랑스 세력이 들어오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네 개의 守가 總으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위의 4개 守 이전에 존재하던 다른 守를 살펴보면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1838년 푸크 빈(Phuc Binh, 福平) 縣이 비엔 호아에 설치되었을 때 이전까지 守였던 빈 러이(Binh Loi, 平利), 딘 관(Dinh Quan, 定管), 푸크 빈(Phuc Vinh, 福永) 守가 이름을 달리하여 푸크 타인(Phuc Thanh, 福誠), 빈 썬(Binh Son, 平山), 빈 뚜이(Binh Tuy, 平綏), 빈 까익(Binh Cach, 平格) 등 네 개의 總으로 재구성되었다(Dai Nam Nhat Thong Chi, 5:38). 이 단계에서, 원래 柵이라 불리던 쓰띠엥의 거주 단위는 남부 베트남의 기본 촌락 단위명인 社 혹은 村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소수민족 거주 단위를 베트남식 행정체제로 재구성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새로 만들어진 總의 長은 당연히 베트남인이었는데, 이전 守를 지배하던 守禦가 總長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동화의 방법은 소수민족 지역 내에 베트남 縣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은 1837년 비엔 호아 省 내 롱 카인(Long Khanh, 隆慶) 縣을 설치했을 때 사용되었다. 두 개의 쓰띠엥 守 롱 안(Long An, 隆安), 푸크 안(Phuc An, 福安)이 해체되어 베트남 행정단위로 다시 조직되었다. 이 두 개의 守로써 36개의 촌락을 포함하는 5개 總이 만들어졌다(正編2, 186:11b-12a).

다음 방법은 민족적으로 혼합된 베트남 현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38년 만들어진 푸크 빈(Phuc Binh, 福平) 縣은 635명의 납세자를 포함하는 16개의 베트남 촌락이 푸크 찌(Phuc Chinh, 福政) 縣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빈 러이(Binh Loi, 平利), 딘 관(Dinh Quan, 定管), 푸크 빈(Phuc Vinh, 福永) 등 3개 守에 거주하던 소수민족과 더불어 성립된 것이다. 이 세 개의 守는 519명의 납세자를 갖는 4 總, 48 村이 되었다(正編2, 195:2b-3a).

總의 일원이 된 이후 소수민족들은 베트남 습속을 배워야 했다.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된 바는 아니었지만 그들 중의 일부는 베트남어를 배워야 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베트남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姓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롱 카인 縣 내의 6

개 總, 폭 빈 縣의 4개 總, 빈 안 縣의 2개 總 등 12개 總 거주민들에게는 林, 李, 楊, 馬 등 13개의 姓氏가 “하사”되었다(Nguyen Thu, 卷3). 그리고 이들은 베트남인으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세금을 내야 했고 베트남인들이 하던대로 군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동화의 과정에서 베트남어, 의복, 풍습, 음식, 경작방법, 심지어 짓가락 사용을 포함하는 식사관습까지 이 새 백성들에게 강요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그들은 베트남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들의 토지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의 자료로 쓰기 위한 地簿도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이민족들로 구성된 롱 카인 縣의 地簿가 만들어진 것은 1846년이였다(Nguyen Dinh Dau, 351).

그러면 비엔 호아의 소수민족이 어떻게 베트남인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베트남 마을과 소수민족 마을이 나란히 서면, 베트남인이 소수민족 거주지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현상이 틀림없이 발생했을 것이다. 베트남인의 원거주민 지역 잠식을 가능케 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농업활동에서 소수민족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생산능력이 베트남인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주 기아에 시달리며 쉽게 토지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예를 들어 1843년과 1844년 폭 빈 縣과 롱 카인 縣에서 기근이 발생했지만 희생자는 주로 이들 소수민족들이었다(正編3, 33:15a; 37:16b). 물론 이들이 거주지를 떠나는데는 베트남인으로 살게됨으로서 겪어야 했던 납세, 병역, 특산물 강제 매상 등의 부담도 컸을 것이다. 베트남인들은 이들 중의 일부가 버리고 간 땅으로 들어가게 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베트남인과 원거주민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해지게 마련이었다. 남아있던 원거주민에게 선택이란 남아서 동화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이 소수민족들이 이동하면서 뒤에 남겨두고 간 아이들의 운명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20세기 초반의 상황으로서, 동화정책이 이미 폐기된 시점이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비엔 호아의 오지에서 벌어지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동화의 시대에 이곳에서 일반적으로 보였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1970년 빈 응웬 록(Binh Nguyen Loc)은 적어도 자신이 6살 때, 비엔 호아 자기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들은 베트남말로 야만인이라는 뜻인 “모이(moi)”라 불렸다. 1970년, 당시 92세였

던 부친의 기억을 빌어 빈 응웬 록은 이 “야만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가 태어난 1913년 이전 그들은 노예였었다.

그들은 [“야만인”] 마을을 형성하고 벼농사를 지어먹고 살아 왔다. 쟁기질 하는 건 알지 못했다. 그러나 청동이나 철로 만든 농기구는 사용했다. 그들은 점차 삼림지대로 옮겨갔으며 우리들에게 결코 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나는 단지 노예들만 보았을 뿐이고 그들의 마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마을에 남아있던 “야만인”들] 우리가 옛날 강제적으로 취했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산 것이다. 흉년을 만나면 그들은 [“야만인”] 쌀이나 소금을 받고 아이들을 팔았다.

빈 응웬 록에 의하면 이 “야만인”은 베트남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Ma) 族이었다. 비록 이 민족 촌락민 대부분이 더 외진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아이들 일부는 베트남인들에게 남겨져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그들 모두는 지극히 가난했으며 그들 중 한 명만 결혼했지만 그것도 한 부잣집의 장애인 딸과였다. 그러나 빈 응웬 록에 의하면 자신이 자라서 20대 시절 다시 마을을 찾았을 때 이 “야만인”들은 크게 변화했다고 한다. 그들은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고 그 중 몇몇은 한자 배우기를 매우 좋아했다는 것이다(Binh Nguyen Loc, 249-252).

4. 이주 중국인의 동화

1) 幫의 파괴

동화의 전 단계로 먼저 이주 중국인들에 대해선 노골적인 차별이 행해졌다. 당시 베트남에는 두 부류의 중국인들이 있었다. 한 부류는 明鄉(minh huong, 민 호엥)이라 불리는 집단으로서 그 근원을 17세기에 베트남으로 이주해 온 명나라 유민 집단에 두는 중국인 혹은 중국인 혼혈들이었다. 그들은 社라고 하는 단체로 조직되었고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베

트남말을 쓰고 베트남 옷을 입는 등 적어도 외모에 있어서는 베트남화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또 한 부류는 淸人(thanh nhan, 타인 년)이라 불리는, 말 그대로 淸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薙髮 등 자신들의 외모와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향 조직인 幫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19세기 초 남부베트남에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으며 중국인에 대한 민 망 帝 시기의 통제도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미 1820년대 말부터 중국인들은 바다를 통한 국내 교역이 금지되었던 바 있었지만 1837년부터는 외국과의 해상무역활동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듬해엔 아예 해상무역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조차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이 발해졌다.

[이 땅에] 이주해 와 살고 있는 淸人들에게는 강을 통한 통상만을 허락하지 바다를 통한 교역은 금지해 왔다. [차후로] 바다로 나가 상업활동하는 모든 商船들은 舵工이나 水手 등 어떤 형태로도 淸人을 고용할 수 없다(正編2, 196:26a).

1년 뒤 민 망 帝는 아주 흥미로운 한 동화정책을 실험하는데, 그것은 淸人들의 동향 조직인 幫을 파괴한다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던 과거 캄보디아, 즉 쩐 띠이(Tran Tay, 鎮西) 城이 실험장소로 선택되었다. 이곳에서 淸人들은 幫 조직을 금지당했다. 만일 이곳으로 들어가 살게되는 淸人들이 있다면 그들은 베트남인이 되기 위해서 베트남 촌락 속에 들어가 살아야 했다. “너희들 [쩐 띠이 城의 베트남 관리들] 구역에 최근 이주해 온 漢人이나 淸人이 있어서 행정 중심지 근처에 살게 되거든 그들 [漢人과 淸人]로 하여금 인구에 따라 촌락을 건설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서로 영향을 받아 모두 漢人이 될 수 있도록 하라. 너희들은 淸人을 따로 幫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正編2, 205:8b). 쩐 띠이 城에서의 실험에서 중앙조정 측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면, 아마도 이 방법이 이후 베트남 내에서도 시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베트남 정부로서 이 전통적으로 강력한 이주 중국인들의 조직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었던 듯 싶다. 프랑스인이 들어오는 1859년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1841년부터는 중국인들을 포함하는 비베트남인들의 반란이 시작된 데다가 강력하게 동화정책을 추구하던 민 망 帝가 이 해 초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

책은 중국인 이주자들을 베트남화 하겠다는 응웬 朝 조정의 지극히 야심적인 시도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2) 淸人을 明郷社人으로

중국인에 대한 동화정책은 민 망 帝 사후 그의 계승자 티에우 찌(Thieu Tri, 紹治, 1841~1847) 帝에 의해서 계속되었다. 이 시기 중앙 조정 측은 이주 중국인들이 단기간 내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 淸人들의 幫을 파괴한다는 근본 인식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해 약간 더 완화된 방법을 사용했다. 淸人들을 베트남인으로 만들기 위해 明郷 조직을 이용한다는 것으로서 淸人을 일단 明郷社의 일원으로 만들어 베트남 사회에 더 밀착시킨다는 것이었다. 1842년 결정은 다음과 같다. 만일 한 중국인이 이주해 왔다면 그는 幫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베트남에 도착한 이후 태어난 아들이나 손자는 雉髮을 할 수 없다. 18세가 되면 이들을 明郷社人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明郷社가 없는 지역에서는 적어도 5명의 淸人 자제들이 있으면 이들로 明郷社을 조직할 수 있었다(欽定大南會典事例, 卷44, 淸人, 8).

3) 明郷社人에 대한 차별과 동화의 가능성

현재까지 明郷社人에 대한 차별을 명시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阮朝 기록들의 행간에서 몇 가지의 증거를 발견해 낼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明郷 출신 관리였던 브엉 흐유 광(Vuong Huu Quang, 王有光)에 대한 조정의 태도이다. 1840년 봄 冷雨가 계속 내리자 민 망 帝는 브엉 흐유 광으로 하여금 주관하여 비가 그치도록 하는 제를 올리게 했다. 비가 계속 내리자 브엉 흐유 광은 황제의 처신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몇 가지 황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에 의해 지적된 민 망 帝의 잘못된 행위는 첫째, 황제가 업무를 보는 자리에서 신하들과 더불어 [어떤 우스운 일을 두고] 깔깔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제가 점잖지 못한 책을 읽었다는 것이었다. 첫 번

째 비판에 대해서는 민 망 帝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브엉 흐유 쩡은 즉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벌칙은 품계의 강등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브엉 흐유 쩡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참수 아니면 유배 정도의 유례없는 벌칙을 논의하고 있었다(正編2, 212:7a-11a). 당시 중앙조정의 이런 반응은 그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明郷社人에 대한 차별은 과거 시험의 결과들에서도 나타난다. 응웬 朝 향시 합격자의 이력이 적혀있는 까오 쑤언 죽(Cao Xuan Duc, 高春育)의 Quoc Trieu Huong Khoa Luc(國朝郷科錄)을 검토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인에게 관대했던 嘉定城總鎮官 레 반 주엘(Le Van Duyet, 黎文悅)이 남부베트남을 지배하던 1820년부터 1831년 사이 4번의 향시에서 57명의 합격자 즉 擧人을 배출했는데, 그중 1825년과 1831년 각각 1명씩 두 명의 明郷社人이 擧人으로 합격되었다. 그러나 嘉定城總鎮이 폐지되고 동화정책이 시작된 이후 민 망 帝 시기 1835년부터 1840년까지 3번의 남부 향시에서 한 사람의 明郷社人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1835~1846년 사이 11번의 남부 향시에서 90명의 擧人을 배출했지만 역시 明郷社人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1847년 특별히 남부에서 과거 응시자가 많아 이 해의 합격자 정원 15명 보다 4명을 추가로 더 뽑았을 때 1명의 明郷社人이 겨우 합격했다. 하지만 이후로 明郷社人이 합격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었다. 1835년부터 프랑스가 들어오기 직전 1858년까지 23년간 남부 자 던 場에서 모두 182명의 擧人이 배출되지만 明郷社 출신은 1847년 향시에서 단 1명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明郷社人이 사라지는 현상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그것은, 明郷社人이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들이 明郷社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스스로를 베트남인이자 칭하려고 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明郷社人이 과거에는 응시하고 싶는데 차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明郷社人이라는 사실을 숨길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1844년의 조정측 기록은 이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즈엉 쩡 또(Duong Quang To, 陽光組)라는 한

淸人은 자신이 淸人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중부 궤 남(Quang Nam, 廣南) 省의 호적으로 향시에 응시했다. 궤 남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다. 그는 향시에서 舉人 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秀才로 합격했다가 淸人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그는 秀才 자격을 박탈당하고 백 대의 杖刑을 당하고는 明鄉社籍에 올려졌다(正編3, 36:20b). 1842년의 결정에 의한다면 그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淸人이어서 明鄉社人으로 등록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베트남인으로 행세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동화정책의 한 산물이었다고 생각된다. 淸人 즈영 궤 또가 4단계의 시험으로 이루어진 향시를 무사히 치렀다는 것은 그의 외향이 다른 베트남인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외향, 혹은 언어까지도 완전히 베트남인화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明鄉社人이라면 베트남인 행세를 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며, 또 아주 明鄉社籍을 포기하고 베트남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화정책이 시작된 이후 달라진 남부 鄉試의 결과는 明鄉社人 지원 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明鄉社人들이 과거에 응시할 때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거나 明鄉社籍을 버렸기 때문에 몇몇 합격자는 중국인계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결혼

동화는 이 시기 남부베트남에서 하나의 경향이었으며, 그것은 남부베트남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동화정책 하에서 소수민족들과 더 가까이 접촉하며 살게 됨으로써 그들과 섞이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더욱 빈번해진 접촉은 새로운 형태의 결혼을 유행시켰는데, 그것은 베트남인과 비베트남인 사이의 결혼이었다. 앞서 소개한 張嘉祀堂世譜全集에서 우리는 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8세기로부터 19세기 말까지(1886년) 7대의 가족사에서 9명의 張氏 집안 남녀가 비베트남인과 결혼했다. 이들의 배우자는 “蠻人”이 4명, 明鄉社人이 3명, 淸人이 2명이었다. 민 망 황 이전까지 이 가족에서 비베트남인과 결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민 망 期부터 이런 결혼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1835년부터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 가족 구성원의 이민족과의 결혼과 거기에서 보이는 동화와 관련된 면모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1) “蠻人”

이 가족 중에 처음으로 비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은 제 3대 쯔엥 민 싹 (Truong Minh Sac, 張明勅, 1806~1835)이다. 그는 한 “蠻人”의 딸과 결혼했다고 한다(p. 7). 이 부부 사이의 첫 딸이 1829년 어린 나이로 사망한 사실과(p. 24) 쯔엥 민 싹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들의 결혼은 1820년대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쯔엥 티 보이(Truong Thi Boi, 張氏盂, 1819년생)는 하 띠엔 省 “瀝架 (Rach Gia) 蠻人” 응웬 반 응아(Nguyen Van Nga, 阮文俄)에게 시집갔다(p. 18). 응웬 반 응아는 당시 하 띠엔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던 크메르인이거나 말레이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혹은 또 다른 잊혀진 소수민족일지도 모른다.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그녀가 16세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1835년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 여인과 “瀝架(Rach Gia) 蠻人” 응웬 반 응아(阮文俄) 사이에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고 하니 가임 연령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잡아도 그녀가 41세 이전에만 재혼했다면 이 결혼은 1859년 이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張氏 집안의 여인으로서 1850년 이전에 첫 결혼을 “蠻人”과 한 경우도 있다. 쯔엥 티 니(Truong Thi Nhu, 張氏洵, 1830~1854)는 촌락의 지도자급에 속하던 쯔엥 민 뚜언(Truong Minh Tuan, 張明俊)의 둘째 딸이었는데, 이 여인은 “소뽀 (Dong Nai, 동 나이) 蠻人” 응웬 반 즈엥(Nguyen Van Duong, 阮文養)과 결혼했으며 아들 응웬 반 찌(Nguyen Van Chi, 阮文支)를 두었다(p. 19). 동 나이는 비엔 호아 省의 토속명으로서 이 “蠻人”은 분명 크메르인은 아닌, 비엔 호아 지역의 몇 개 소수민족, 즉 쓰띠엥, 마, 찌러, 또는 므농 중의 한 민족 출신이었다고 보인다. 쯔엥 민 옌(Truong Minh Yen, 張明燕, 1820~1889)은 1830년생 “瀝見 (Rach Kien) 蠻人” 당 반 팜(Dang Van Tam, 鄧文三)의 孀女” 당 티 투언(Dang Thi Thuan, 鄧氏順)과 결혼했다. 이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다. 쯔엥 민 옌은 이것이 두 번째 결혼으로서 그의 첫째 아내(1821~1867)가 죽고 난 이후

의 재혼이었다(pp. 18-19). 이들의 두 자녀가 각각 1883년과 1885년 어린 나이로 사망했다는 사실과(pp. 36-37) 투언의 가임 능력을 고려할 때 이 결혼은 1870년대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2) 이주 중국인

제 3대 쓰엉 민 동(Truong Minh Dong, 張明銅, 1808~1865)은 明鄉 여인 鄭氏와 결혼했다(p. 7). 이 부부 사이에서 첫 아들이 1835년에 태어났다는 사실과(p. 15) 쓰엉 민 동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들은 1830~1835년에 결혼했다고 생각된다. 제 4대 쓰엉 민 후언(Truong Minh Huan, 張明訓, 1826~1866)은 明鄉 출신 도 티 반(Do Thi Van, 杜氏蘭)과 결혼했는데(p. 18), 이들 부부의 첫 딸이 1846년에 태어났다는 것과(p. 32) 쓰엉 민 후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이 결혼은 동화의 시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훨씬 뒤에 제 4대 1855년 출생의 이 집안 남자와 1862년생 明鄉 여인과의 혼인 기록이 있다(pp. 26-27).

그렇다면 淸人과의 혼인은 어땠을까? 다소 과장기가 있기는 하나 1830년대 중반 베트남에서 몇 달간 체류한 적이 있는 중국인 선비 蔡廷蘭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여인은 중국남자 [淸人]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한다”(蔡廷蘭, 36)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베트남 중부의 팡 아이(Quang Ngai, 廣義) 省 지역에 표류하여 북부 랑 썬(Lang Son, 諒山) 지방을 통해 중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줄곧 福建幫, 廣東幫, 潮州幫 등에서 나온 중국인 통역들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 여인과 중국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한 견해에는 중국인들의 편견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베트남에서 중국인과 베트남인과의 혼인은 분명 드문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 이주해온 중국인으로서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인 부인이나 첩을 두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부베트남의 張氏 집안 역사에서 淸人과의 결혼은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비해 상당히 늦게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그리고 혼인은 모두 張氏 집안 여인과 淸人 남자 사이에서 있었다. 제 4대 쓰엉 티 싸익(Truong Thi Sach, 張氏冊)은 廣東幫

출신의 淸人에게 출가했다. 그녀가 1843년 생이니 이 결혼은 프랑스가 남부 베트남에 들어오던 1859년 전후에 있었을 것이다. 1848년생 쯔영 티 파이 (Truong Thi Tai, 張氏財)는 福建幫 출신 淸人和 결혼했으며(p. 16) 그녀의 연령으로 보아 이 결혼은 1859년 이후에 있었다.

여태껏 파악한 결혼 연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820년 이전 - 0
- 1820~1830 - 1 (“蠻人”)
- 1830~1835 - 1 (明鄉)
- 1835~1859 - 4 (“蠻人” 2, 明鄉 1, 淸人 1)
- 1859년~1886년 - 3 (“蠻人” 1, 明鄉 1, 淸人 1)

廣東幫 淸人和 쯔영 티 싸익의 결혼은 이 가족의 이민족과의 결혼은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보여준다. 첫째, 이민족과의 결혼이 1835년과 1859년 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민족과의 결혼이 1835년 이전보다 이때 더 많은 것은 가족 구성원의 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늘어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난 1859년 이후 27년 동안의 결혼이 이 24년간 결혼 전수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걸 보면 이민족과의 결혼 증가가 단순히 가족구성원의 증가에 비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하는 비베트남인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최초에는 소위 “蠻人”들이 이 집안에 흡수되었다. 그 다음엔 明鄉社人이며 마지막으로 淸人까지 이 집안과 맺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집안에 들어오는 비베트남인이 “蠻人,” 明鄉社人, 淸人の 순서라는 점이다. 이는 남부베트남에서 거주한 역사의 길이, 베트남인들과 접촉의 길이, 그와 관련된 민족적 친밀도가 이 집안의 혼인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적어도 19세기 전반 베트남인과 淸人과의 거리감은 베트남인과 여타의 다른 소수민족들 사이의 거리감에 비교하여 컸다는 사실이며 그래서 베트남인으로서는 淸人에 대한 동화 작업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는가 한다.

IV. 반란

결혼에서 보이는 베트남인과 비베트남인 사이의 결합과 그에 따른 베트남인의 생산이라는, 평화적인 동화현상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중앙 조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추진되던 급진적인 동화정책은 결국 남부베트남에서 이 민족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민 망 帝 말기인 1841년부터 남부베트남에서는 소수민족의 반란들이 일어나게 된다.

불만은 캄보디아 영역 내에서 먼저 폭발했다. 그렇지만 반란은 급속도로 남부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남부 6개 省 중 하 띠엔, 안 장, 빈 룡 등 비교적 크메르인들의 비율이 높았던 3개 성은 직접적으로 크메르인들의 반란을 겪어야 했다.⁸⁾ 그 외 딘 뜨엉, 자 딘, 비엔 호아 등 동부의 3개 성은 서부 3개 성에 비해 비교적 정도가 덜했지만 종족적 분류에서 자유롭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자 딘 省 내에는 북부에 새로 편입된 이전 크메르인 지역 띠이 닌(Tay Ninh, 西寧) 府가 있었다. 1845년까지 지역 관리들을 포함하는 베트남인들은 크메르인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납치, 살해당했으며 조정측은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이 지역으로 접근을 금할 정도였다(正編3, 47:4b). 크메르인들과의 갈등이 전개된 것은 딘 뜨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딘 뜨엉의 종 탐과 종 썬 지역의 크메르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난 것도 이 시기라고 생각되며 이는 민족적 긴장이 고조된 결과였다고 본다. 남부베트남에서 전해져 오는 한 전설에는 리에유(Lieu, 柳)라고 하는 베트남 여인이 길을 가다가 크메르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자 돌에 머리를 부딪쳐 자결했다든가 후에 귀신이 되어 크메르인들과 싸우는 베트남인들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나온다. 이 여인에 대한 기사는 조정측의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이는 딘 뜨엉에서 소수민족 반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南天孝行實錄; Huynh Minh 1969, 138-139). 비엔 호아 역시 많은 소수민족들이 베트남 지배하로 흡수된 지역이다. 그러나 새로이 편입된 소수민족들은 베트남인 지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바야호로 다이 남(大南)으로부터 이 탈하려는 중이었다.⁹⁾ 淸人들의 불만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들은

8) 이 지역들에서 발생한 크메르인들의 반란에 대해서는 Nguyen Phan Quang. pp. 133-159를 볼 것

9) 한 소수민족 촌락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改土歸流 이후 그들은

크메르인들에게 협조하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저항했다. 그래서 크메르인들의 반란이 있었던 곳에는 淸人들의 참가가 자주 눈에 띈다(正編3, 3:27; 11:24a; 23:9b; 25:16). 뿐만 아니라 1845년 자 딘에 파견된 한 중앙 관리는 이 지역의 淸人들이 캄보디아로 도망가서 첩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正編3, 46:17b).

여러 가지 반란 중에서 빈 롱 省 락 화(Lac Hoa, 樂化) 府에서 있었던 크메르인들의 소요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漢夷有限”의 상태에 있던 베트남인-크메르인 관계가 동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민족 사이의 충돌로 발전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남부베트남으로 흘러드는 두 줄기의 메콩강, 즉 상부 메콩과 하부 메콩 사이에 위치하는 이 지역의 크메르인들은 민망 년간 중반까지 독자적인 크메르 사회를 유지해 왔다. 응웬 반 툴(Nguyen Van Ton, 阮文存)은 크메르인으로서 자 롱 帝의 개국공신 중의 한 명이며, 그의 집안이 위 비엔 돈(Uy Vien Don, 威遠屯)이라 명명된 이 지역을 지배했다(正編3, 6:8a). 1825년 레 반 주엘의 건의에 의해서 락 화 府로 개칭되지만(Minh-Menh Chinh-yeu, 24:7a), 크메르인 자치지역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크메르인들이 레 반 코이의 반란에 협조했다 하여 1834년 자치가 종결되었다(正編3, 6:8a). 락 화 府의 운명은 자 딘 政權 시기에 수립된 베트남인-크메르인 사이의 상호 공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교육이라든지 雜居 등의 베트남화 작업이 실시되었고, 1841년 크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자율권과 전통적 생활방식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개시했다. 동화작업의 한 산물로서 럼 썸(Lam Sam, 林森)이라는 베트남식 이름을 갖게된 전직 크메르 관료의 지도로 수천의 크메르인이 반란을 일으켰다. 베트남인 관리들의 관찰에 의하면 반란 지도자들은 크메르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토착적인 전통에 기반한 도구들, 즉 道服이나 미술적인 주문과 깃발 등을 사용함으로써 베트남인과의 싸움을 독려했다고 한다. 뚜언 응이아(Tuan Nghia, 遵義)와 짜 빈(Tra Vinh, 茶榮) 현의 크메르인들이 이 반란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이 두 현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되고 베트남인들이 지배자로 들

[베트남인] 身稅를 징수하고 토산품을 싼 가격으로 강제 매입했다. 우리를 병사로 징발하고 [멋대로] 토지를 측량, 구획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正編2, 204:12b.

어얏은 락 화 부의 관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正編3, 6:8).

하지만 반란 자체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동화와 그에 대한 소수민족들의 반응에 얼마나 남부베트남인들이 노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동화정책이 시작된 이후에 이들이야말로 이민족과 첫 접촉을 갖는 베트남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촌락들이 동화를 위해서 주변의 크메르인 촌락들과 합쳐졌다면 베트남 촌락민들은 당연히 남부인들이었다. 베트남인과 비베트남인이 섞인 상위의 행정 단위, 즉 總, 縣, 府의 수장들은 대부분 남부베트남인들이었다. 嘉定城總鎮이 해체되고 남부에서 동화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보이는 한 전형적인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 남부에 여섯 개의 省이 설치되었는데 각 省의 總督, 巡撫, 布政, 按察 등 주요 직책은 북, 중부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관리들이 차지했고,¹⁰⁾ 남부인들은 동화를 위해 새롭게 조정된 행정 단위를 책임졌다. 부이 흐유 응이아(Bui Huu Nghia, 1807~1872)의 사례에서 남부에서 보이던 전형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빈 롱 출신으로서 1835년 향시 합격자인 그는 소수 민족이 많았던 비엔 호아 省 산하 폭 롱(Phuc Long, 福隆) 府의 지부로 일한 바 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빈 롱 省의 크메르 현이었던 짜 빈 현으로 전보되었는데, 당시 빈 롱 省의 총독은 중부 출신 쓰엉 반 우엔(Truong Van Uyen)이었다(Huynh Minh 1966, 71). 1837년 향시 합격자로서 자 딘 출신이었던 응웬 캅 디에우(Nguyen Khac Dieu, 阮克調)가 비엔 호아 省 빈 안 縣의 지현으로 일할 때 그의 상급자인 비엔 호아 省의 布政 도 후이 까인(Do Huy Canh, 杜輝環)과 按察 판 반 쓰엉(Phan Van Xuong, 潘文猷)은 각각 북부 남 딘(南定) 省과 중부 광 남(廣南) 省 출신이었다(正編3, 42:24b-25; Quoc Trieu Huong Khoa Luc). 이렇듯 각 省 단위의 상위 보직은 북, 중부로부터 내려온 관료들이 맡고 있었으나 縣 단위 이하 동화 작업의 전면에는 대부분 남부인들이 서 있었다. 1835년 병합한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동화정책을 추진한 쓰엉 민 장(Truong Minh Giang, 張明講, 1792~1841)도 남부인으로서, 앞서 언급한 張氏 집안의 일원이었다.

지방 관리들이나 일반 촌락민 이외에 심지어 남부 출신 범법자들 또한 중앙 조정에 의해서 동화의 선봉으로 인식되었다. 1836년 조정측이 캄보디

10) 이 문제에 대해서는 Choi, pp. 86-89를 참조할 것.

아에 있는 한 屯田에 이들 범법자들을 보낼 즈음 민 망 帝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남부 출신의 범법자들이] 캄보디아인들과 더불어 살게 하여 그들로 [캄보디아인들] 하여금 漢風을 배우고 漢風에 물들게 하라. 이 또한 用夏變夷의 한 방법이다”(正編2, 172:20a). 범법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남부베트남인이 “夷”를 교화하는 “漢”의 범주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동화정책이 진척되어 감에 따라 남부인들은 더 많이 민족적 갈등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1836년까지는 남부에서 성인 남자 8명중의 1명이 병사로 징집되었지만 이 해부터는 5명 중 1명이 징집되었다. 말하자면 성인 남성의 20%가 군인으로 동원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해부터 시행된 또 한 규정에 의해서 이 숫자의 남부인들이 직접적으로 민족 갈등의 문제에 연계되게 되었다. 嘉定城總鎮이 해체되기 이전에는 남부베트남에서 징집된 병사들이 남부 내에서 이동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부나 북부로도 파견되는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1836년부터 이들은 주로 크메르인들과 접촉해야 하는 캄보디아와 남부 하 띠엔 省으로만 보내지게 되었다(正編2, 165:18b-19a). 남부 출신의 군인들에게 이것은 큰 변화였다. 이때부터 그들의 주요 임무는 크메르인들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인구통계가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 있는 메콩 동부에서는 1836년의 법령으로 총 11,531명의 병사가 비엔 호아(1,813명), 자 딘(6,143명), 딘 뜨영(3,575명) 등 3개 省에서 징집되었다(阮朝朱本 1836년 1월 27일자). 그러다가 1841년에 크메르인들의 반란이 발생하자 2,500명이 자 딘(1,500명)과 딘 뜨영(1,000명)에서 추가로 징집되며, 다시 1842년에는 2,000명이 비엔 호아(500명), 자 딘(1,000), 딘 뜨영(500명)에서 군인으로 동원되었다(正編3, 16:19a). 이로써 남부 성인 남성 중 병사의 비율이 20%를 이미 넘어서게 되었지만 이 수치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등록된 성인 남자, 즉 피과세자란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을 이른다. 반면에 군역에 종사하는 나이는 50세까지였다(Dai Nam Dien Le Toat Yeu, 452). 이렇게 볼 때 18세부터 50세 사이 남성, 즉 활발한 경제 연령층인 청·장년 인구중 군인으로서 민족 분규를 직접 겪은 사람들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범법자들의 숫자도 고려되어야 한다. 종종 남부 출신의 범법자들은 크메르인들과 싸우는데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1845년엔 남부 6성의 범법자들이 군대로 재조직되어 베트남 군대의 전면에 세워져 크메르인 군대와와의 전투를 수행했다(正編3,

48:12a). 인구 대 병사의 비율은 메콩 서부의 3개 省 빈 룡, 안 장, 하 띠엔에서도 유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 분쟁을 직접적으로 겪은 것은 이 지역에서 더 심각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이들 3개 省에서는 크메르인들의 반란이 동 부 3개 省에 비해 더욱 극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남부베트남인들은 비베트남인들과 더불어 사는 촌락민으로서 혹은 관리로서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범법자들로서 또 이들의 가족들로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율이 이민족과의 갈등에 노출되게 된 것이다.

동화란 남부베트남 내 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중앙 조정과 연계된 남부베트남의 관리로부터 일개 촌락민, 범법자까지 동원된 남부의 총체적 베트남화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화의 전위에 서야 했던 남부베트남인들은 비베트남인들의 베트남인에 대한 적대감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비베트남인들의 증오에 제일 먼저 희생이 되었던 것도 이들이었다. 바로 이런 민족 분쟁을 거치면서 남부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이 베트남인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1830년대 시작된 남부베트남에서의 소수민족 동화정책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1841년부터 일어난 남부의 소수민족 소요는 캄보디아 반란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베트남 내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수장들에 대한 특권 박탈 등에 의해서 자극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남부에서 전개된 동화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 또 이 정책은 중국적 조공질서를 파기하고 직접지배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신들 영역, 즉 다이 남(大南) 國 내의 민족들을 베트남화 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민족적으로 다양한 남부를 베트남화 시키는 데는 각 민족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토착 남부 거주민들이었던 크메르인들이나 말레이계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촌락으로부터 현 단 위까지 각종 행정 단위의 조정과 조작을 통해 베트남인들과 섞이게 했고 교육을 통하여 언어와 문자를 학습시키고 베트남식 풍속과 의복 등을 강제했다. 심지어 소수민족들의 祭儀까지도 베트남식으로 바꾸었다.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던 남부베트남의 여러 지역이 급속도로 베트남인들에게 장악된 것도 동화의 시기를 거치면서였다.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경제 활동을 노골적으로 제약하고, 幫의 파괴를 시도하였으며 외모를 베트남식으로 바꾸게 했다. 비교적 베트남화 되어 있었다는 明郷 중국인들이 위축된 것도 동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동화정책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는 베트남인과 비베트남인 간의 갈등이었다. 1859년부터 프랑스인들이 남부베트남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비베트남인들은 급속히 프랑스 세력으로 다가가며 저항운동은 거의 베트남인들에 의해서만 전개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다. 이후 식민지 시대 남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베트남인과 중국인의 갈등, 그리고 독립 이후 현대사에서 줄곧 나타나는 남부베트남의 민족간 긴장 문제의 등의 출발점은 바로 1830년대부터 시작된 동화정책이었다.

남부에 살던 베트남인으로서 이 동화정책이란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서 중요성을 갖는다. 남부인들은 다민족 공존의 전통 속에서 통일 왕조 창출의 주역이 됐고, 183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전통을 유지해 왔다. 남부베트남인들은 자신들 주변의 비베트남인들을 포괄하는 자 단(嘉定)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했다. 하지만 동화정책의 개시와 더불어 남부의 베트남인들은 비베트남인들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한다. 이 과정 속에서 남부의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이 자 단의 비베트남인들보다는 자 단 이북의 베트남인들과 더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1840년대부터 나타나 남부베트남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베트남인들의 종교 브유 썬끼 호영(Buu Son Ky Huong, 寶山奇香)이 동포, 국가의 은혜에 대한 관념을 강조하면서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었다는 사실은 동화의 시기를 경과하며 남부베트남인들이 경험한 민족적 자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민 망 시기 남부에서의 동화정책은 비베트남인들을 베트남화 하려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초래한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가 ‘남부베트남인들의 베트남화’였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참고자료

* 正編1, 2, 3: 大南寔錄正編第一, 二, 三紀

- 南天孝行實錄 1869. Vien Han Nom VHv 1240, Hanoi.
- 大南正編列傳初集.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재편찬, 1962.
- 大南寔錄前編.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재편찬, 1961.
- 大南寔錄正編第一紀.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재편찬, 1963.
- 大南寔錄正編第二紀.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재편찬, 1971.
- 大南寔錄正編第三紀.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재편찬, 1977.
- 阮朝朱本 1836년 1월 27일자, ANU Library, microfilm reel 60.
- 越南地輿志. Vien Han Nom A 1829, Hanoi.
- 張嘉祠堂世譜全集 1886. Vien Han Nom A 3186, Hanoi.
- 鄭懷德 1819. 艮齋詩集. 新亞研究所 재출판, 香港, 1962.
- 蔡廷蘭 1836. 海南雜著. Vien Han Nom HVv 80, Hanoi.
- 清史稿校註. 國史館, 臺北, 1990.
- 崔秉旭, “베트남 阮朝 (1802~1945) 초기의 嘉定城總鎮-明命帝와 總鎮官 黎文悅의 관계를 중심으로-” 慶大史論 第8輯, 1995.
- 欽定大南會典事例. Vien Han Nom VHv 1570, Hanoi.
- Binh Nguyen Loc, "Viec mai no duoi vom troi Dong Pho va chu dat that cua vung Dong Nai (東鋪 하늘 아래 지나간 노예 생활과 동 나이 지역의 실제 주민)," Tap San Su Dia (集産史地, Saigon), No. 19-20, 1970, pp. 249-258.
- Cao Xuan Duc (高春育). Quoc Trieu Huong Khoa Luc (國朝鄉科錄). Le Manh Lieu 번역, Trung Tam Hoc Lieu, Bo Van Hoa Giao Duc Thanh Nien, Saigon, 1961.
- Chandler, David P. 1993. A History of Cambodia. Allen & Unwin, Sydney.
- Choi, Byung Wook 1999.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PhD dissertation. ANU.
- Dai Nam Dien Le Toat Yeu (大南典例撮要) 1909. Nguyen Si Giac 번역, nxb Thanh Pho Ho Chi Minh, Ho Chi Minh City, 1994.
- Dai Nam Nhat Thong Chi (大南一統志), 베트남사학원 번역, Thuan Hoa, Hue, 1992.
- Huynh Minh 1966. Can Tho Xua va Nay (견 터의 과거와 현재), Saigon.
- _____ 1969. Dinh Tuong Xua va Nay (定祥의 과거와 현재), Saigon.
- Lao Dong (노동), Hanoi, 1997, 7월 3일자.
- Le Huong, "Dia danh, di tích lịch sử, thặng canh trong vùng người Việt gốc Mien

- (크메르계 베트남인 지역의 地名, 歷史遺跡, 勝景), “Tap San Su Dia (史地集産, Saigon), No. 14-15, 1969, pp. 209-231.
- Minh-Menh Chinh-yeu (明命政要). Uy Ban Dich Thuat Phu Quoc Vu Khanh dac-trach van-hoa 번역, Saigon, 1972-1974.
- Nguyen Dinh Dau 1994. Nghien Cuu Dia Ba Trieu Nguyen: Bien Hoa (阮朝地簿研究: 邊和). nxb Thanh Pho Ho Chi Minh, Ho Chi Minh City.
- Nguyen Lang 1994. Viet Nam Phat Giao Su Luan (越南佛教史論) 제 2권, Van Hoc, Hanoi.
- Nguyen Phan Quang 1986. Phong trao nong dan Viet Nam nua dau the ky 19 (19세기 전반 베트남 농민운동) nxb Khoa Hoc Xa Hoi, Hanoi.
- Nguyen Thu, 寔宇紀聞, Vien Han Nom A. 585, Hanoi.
- Smith, R. B. "Politics and Society in Viet-Nam During the Early Nguyen Period (1802-1862),"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London) 2, 1974, pp. 153-169.
- Viet Cuc 1969. Go Cong Canh Cu Nguoi Xua (고 풍, 과거의 경관과 인물) 제 2권, Saigon.
- Woodside, Alexander 1971.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Nguyen and Ch'ing Civil Govern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